

광주 전동킥보드 여전히 ‘무법천지’…법 ‘유명무실’

사고 매년 급증…안전모 미착용·승차정원 위반 등 여전
상시 단속도 효과 ‘미미’…이용객 안전의식 교육 등 절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모(56)씨는 최근 위험천만한 광경을 목격했다.

아침 출근길에 고교생들로 추정되는 3명이 킥보드를 타고 인도와 도로를 빠르게 내달리는 상황을 목격한 정씨는 “주행중에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전동킥보드를 보면서 만약 넘어지거나 2차 사고로 이어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어도 광주지역 내 무법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 등 단속 건수만 수천 건에 달하는데다, 경찰의 상시 단속에도 효과가 미미해 운전자 안전의식 교육 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광주지역 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발생 건수는 총 124건으로 2018년 15건, 2019년 18건, 2020년 38건, 2021년(지난 7월까지) 53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전동킥보드 이용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사고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지난 5월13일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원동기면허 이상) ▲음주운전 ▲동승자 탑승금지 등의 처벌이 강화됐다.

광주지역의 경우 관련법 시행에 따라 5월부터 8월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세달만에 단속 건수가 무려 3천800여건에 달하는 등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위반 사례만 급증하고 있다.

이 기간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총 3천7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무법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시내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 /김애리기자

26건으로 안전모 미착용 2천996건, 보도통행 금지위반(인도 주행) 421건 등 이

외에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승차정원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2인 이상 탑승과 인도 주행이 여전한 실정이라서 안전사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 김모(34)씨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보편화됐지만, 단속·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상황이다. 아이들이 두 명씩 탑승해 무법천지로 길거리를 활보하는 탓에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며 “단속·계도 홍보 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용자 개인의 안전의식 제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 강모(56)씨는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는 조금씩 해소되는 듯 보이나, 안전모 착용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이용자들이 주로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학교와 가정 등 꾸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광주지역 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개정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상시 단속에도 효과가 미미해 실질적인 대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이후, 상시 단속과 관련 캠페인 등 펼치고 있다”며 “운전자 본인과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안전수칙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전문의약품 300만정 밀수입한 일당 ‘철퇴’

광주세관-식약처 합동 단속 2명 검거

무허가 탈모치료제와 구충제 등 전문의약품 300만정을 국내로 밀수입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5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과 합동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300만정(16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판매한 A씨 등 2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을 인도 등지에서 밀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보다 값이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해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다이어트약 등을 밀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충제까지 밀수입한 후 코로나

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사 인터넷쇼핑몰의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거나 고객 대응시 대포폰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내로 불법 수입한 의약품은 세관신고 없이 국제우편물로 소비자에게 직배송하거나 자신들의 사무실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

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므로 소비자들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허가된 제품만을 구매해야 한다”면서 “허가 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나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의약품 밀수입 및 인터넷 불법판매를 근절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수희기자

광주 붕괴 참사 유가족들 “SBS 영상에 슬픔·분노”

“시정률 올리기 위한 목적 비난…유언비어까지 2차 피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유가족 대표단이 5일 “SBS 드라마 영상 논란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A씨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현재까지도 트라우마로 몹시 힘든 상황에서 시정률을 올리기 위해 붕괴 참사 장면을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울

먹었다.

유가족 대표단은 “사고 원인과 진상 규명 등 관련자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그리고 다시는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후진국형 인재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해 슬픔과 고통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가족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받

았고, 심지어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아파트까지 받았다는 전혀 근거 없는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면서 “지상파 SBS 드라마 사태는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을 빚은 드라마 영상은 지난 3일 방영된 SBS TV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등장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드라마 속 인물들이 거주하던 주상복합 건물의 붕괴 소식을 전하는 극 중 뉴스 보도다.

실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포항 지진 당시 영상이 드라마 장면에서 사용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펜트하우스 제작진은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해당 방송분의 다시 보기는 중단된 상태다.

한편, 철거건물 붕괴 참사는 지난 6월 9일 오후 4시22분께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했다.

철거공사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에 매몰됐다.

짓눌린 버스 안에 갇힌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다쳤다. /김동수기자

중앙공원 1지구 특혜의혹…경찰 ‘내사 종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보증서 특혜의혹을 살펴본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5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의 보증서 보관 제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봤으나 위법행위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내사 종결했다.

광주시는 사업이 무산될 때를 대비한 보증금 성격으로 이행 보증서를 공인 조성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130억원 규모, 협약 이행 보증서는 토지 매입비의 10%인 326억원 규모 등으로 받았다.

그러나 130억원대 사업 이행 보증을 특수목적법인(SPO)과 계약한 도급 업체의 계약서로 갈음해 효력 논란이 발생했다. 여기에 326억원 규모의 협약 이행 보증

서는 지난 1월 효력이 만료됐음에도 석달 가까이 보완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광주시는 뒤늦게 보완을 요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으로 부터 협약이행 보증서와 사업 이행 보증서를 받아 문제를 바로잡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이나 ‘직무유기’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관계기관에 법률 유권 해석도 의뢰했지만,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사업면적 240만㎡로 광주의 1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할 만큼 대규모이다. /김동수기자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 60대 근로자 추락사

광주 남구 한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도중 60대 근로자가 5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5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50분께 광주 남구 한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A(64)씨가 5층에서 추락했다.

A씨는 당시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거푸집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태훈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야외 결혼식

칠순잔치

체육대회

야유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

CMYK